

(Robert Vannoy) , 대선지자, 강의 18

주의 중 주제(사 53장) 계속

이사야 53:4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우리는 방금 이사야 53장 4절을 마쳤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느니라.” 우리는 그 번역에 대해 논의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대한 언급임을 더욱 적절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치유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노라.

이사야 53:5 그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설명하는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이유, 고난을 받은 이유, 매를 맞은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범법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5절은 이 사람이 고난을 받은 이유와
고난을 받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5절에 속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고 다시 언급합니다. 따라서 5절은 대속적 속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한 구절에 그 개념에 대한 네 가지 평행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네 개의 평행선은 모두 대속적 속죄라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53:6 대속죄 는 6절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각각 제 길로 갔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아마도 대속의 개념이 계속되는 구절에서 가장 친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 대한 죄책이 그리스도에게 지워졌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5절과 6절은 대속적 속죄를 가르칩니다 .

이사야 53:7 이스라엘이 아니라 7절, “그가 학대를 받아 환난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십니다. 양털 깎는 자 앞에서 말 못하는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신은 이사야 50장 6절의 이전 구절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등을 때리는 자들 에게 , 내 뺨을 털을 뽑는 자들에게 맡겼느니라.” 자발적인 제출입니다. 여기에 다시 이 구절들에 묘사된 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제 종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개인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에는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학대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십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이 병어리 같아서 입을 열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 동안 비자발적으로 겪은 고통과 대조됩니다. 이사야서의 이전 장들에서 당신은 이 구절의 조용한 복종에 대한 진술과 거의 맞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평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53:8 그분의 죽음이 절망적임 8절은 그분의 죽음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느니라.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그가 고난을 당하였느니라.” 그의 죽음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은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라는 수사적 질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후손도 없고 후손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역 기간 동안 그와 함께 있었던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들 모두는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 자의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절망적 인 것 같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잡혔으니 심판을 받지 못하고 그의 세대를 누가 선포하리요?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느니라.” NIV는 “누가 그의 후손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느냐” 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 요점은 여기 죽음에 처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후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문구에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마지막 문구는 다시 대속죄로 대답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은 “내 백성의 범법 때문”입니다.

이사야 53:9 악한 사람들(복수)과 부자(sg.)가 할당된 무덤 많은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구절에서 그들의 전체 역사를 일종의 박해와 반유대주의 행위 로 볼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학대를 당했습니다. 9절로 가보겠습니다. 킹제임스성경 9절의 첫 구절은 “그의 죽으심으로 그 무덤이 악인과 부자와 함께 있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의 인용문을 다시 살펴보세요. MacRae 에서 몇 가지 단락을 더 가져왔습니다 . 그는 9절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토론을 했는데, 내 생각에는 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는 요점을 이해하고 이끌어내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절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하여 일어날 특이한 상황에 대한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은 다소 부정확합니다. 그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난 일과의 관계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특히 첫 번째 조항이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가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과 함께’ 무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된 동사는

일반적으로 'make' 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번역은 '주다' 입니다 .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인 *נָתַן* (*Natan*) 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번역은 '주다' 입니다. 이는 임명이나 할당에 자주 사용됩니다. 흠정역 (King James Version)에 번역된 대로 이 표현은 마치 종 자신이 무덤을 만든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만들었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비인격적이다. 이는 많은 언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용법이지만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용어는 '그들이 그의 무덤을 지정했다' 또는 '그의 무덤이 지정되었다' 입니다. '그가 악인과 함께 무덤을 만들었느니라' 에서 '악인' 으로 번역된 단어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 '악인' 으로 번역된 단어는 복수형이지만 관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이지만 관사가 없습니다. 복수형의 *resha'im* 입니다 . 그것을 '악한 자들' 로 번역하고 전체 절을 '그의 무덤이 악한 자들과 함께 지정되었음' 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당신은 흐르는 길을 봅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당연히 그들과 함께 장사될 것이 당연했습니다. 로마의 관습은 범죄자들을 매장하지 않은 채로 두거나, 한 무리를 부정한 곳에 함께 묻어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흠정역 (King James Version)에서는 이 구절이 '부자와 함께 그의 죽음에' 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로 번역된

접속사는 '그러나' 또는 '아직' 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도 종종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그리고' 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로 번역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부자' 로 번역된 단어는 단수형이며 관사가 없습니다. '부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악인들과 함께 장사될 것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기대였지만, 그분의 시신은
 그들과 함께 장사되지 않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상소한 결과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7:57-60).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예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MacRae가 "그의 무덤은
 악인의 무덤이요, 부자의 무덤은 그의 죽음과 함께 있도다"라고 제안한
 것처럼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MacRae는 다음 두
 단락에서 계속됩니다. "이사야 53장을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닌 다른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해석자들은 '부자' 라는 단어에서 큰
 걸림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문맥상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악행자' 와 같은
 다른 단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본은 '부자' 로 읽는 데
 동의합니다. 자신과 함께 죽임을 당한 범죄자들에 대한 복수형 언급 뒤에는 '
 부자' 를 뜻하는 단수가 나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전체

사본에서 '부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처음에 복수형으로 기록된 후 복수형 어미가 삭제되었습니다. 원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동양 연구 학교 게시판(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에서 Yale의 Millar Burrows 교수는 이것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서기관은 '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앞에 나오는 복수 단어의 영향을 받아 이 단어를 처음으로 복수형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서기관은 그 사본이 복사된 원고에 단수형으로 '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따라서 복수형을 지웠습니다. 따라서 사해 두루마리는 '행악자'라기보다는 '부자'라고 읽는 것이 정확하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무기 예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기 예언 MacRae는 “무기 예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적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무기적 예언”은 신성한 목적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단지 발생하는 일이 실제로 예측된 사건이라는 증거 역할을 하는 부수적인 특징에 대한 예측입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은 죄 많은 인류의 죄를 장사하는 종의 성취를 증가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관한 한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

장에 예언된 대로 이 특정한 처형을 지적하기 위해 700년 전에 미리 언급된 부수적인 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수께서 훌륭한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은 그분의 죽음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신성한 수단이었습니다. 부활. 만약 그의 시신이 단순히 중범죄자의 무덤에 던져졌다면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부활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놀라운 방식은 성취가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의미있게 확증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9절의 첫 부분과 관련하여 맥레이가 관찰한 내용은 그 의미와 신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acRae는 이렇게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마치 종 자신이 무덤을 만든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이 표현은 비인격적이다. 이것은 많은 언어에서 발견되는 사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용어는 '그들이 그의 무덤을 지정했다'입니다. 즉, 영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잘 이해하려면 '그의 무덤이 지정되었습니다.'라는 수동태로 바뀌어야 할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수형 개념이다. 히브리어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무덤은 “악한 자들”의 무덤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악한 자들의 무덤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힐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무덤은 악한 자들의 무덤으로 정해졌으나 그의 죽음으로 부자의 무덤으로 정해졌느니라.” 단수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실제로 기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의 마지막 문구는 실제로 9절보다 10절과 더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알 (*al*)로 실제로 “사실에 관하여” 또는 “~에 대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킹제임스 성경은 거기에서 “왜냐하면”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폭력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 입에 꾀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님, 그를 상하게 해주세요.”

이제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를 읽을 때 “기쁘게 여기셨다”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예정으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창세 전에 명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강포도 없고 꾀홀도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슬픔”이라는 단어는 4절에 나오는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도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가 그에게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사”라는 문구가 이 구절 끝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고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다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그의 목적이 그의 손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에서 “pleasure”라는 단어는 거기에 어떤 종류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강조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즉 그분의 기쁘신 뜻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사야 53:10 속죄제 10절 중간에 흥미로운 번역 질문이 있습니다.

의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King James, NIV, New American Standard 및 Berkeley 버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은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드리고”라고 말합니다. NIV는 “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삼으셨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NASV는 “그가 자신을 속건제물로 바친다면”이라고 말합니다. 버클리는 “그의 영혼이 속죄 제물이 될 때” 라고 말합니다. 번역에서 대부분의 경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질문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삽입하셔야 합니다. NIV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삼으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남성 단수라면 “the Lord” 가 주어라고 가정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두 번째 남성 단수인 “때에”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주시고” , 종의 생명을 속죄제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 번째 여성 단수라면-히브리어에서는 두 번째 남성 단수형과 세 번째 여성 단수형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세 번째 여성 단수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 단수이면 히브리어 단어 *네페쉬*가 주어입니다. 버클리의 “그의 영혼이 있을 때” 처럼 영혼은 여성적입니다. *네페시* 는 여성형이다. 따라서 이 동사를 세 번째 여성형으로 취하면 *네페시*, 즉 영혼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속죄 제물이 될 때에는” 문제는 *네페시* /영혼/생명을 주어로 취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주어로 취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두 번째 남성 단수로 취하여 “the Lord” , you the Lord를 주어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속 속죄를 하든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과 NIV에 대한 두 번째 남성적 단일 견해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 하지만 여기에 해당 번역에 대한 실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맥상 주제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변경됩니다. “주께서는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그 사람을 슬프게 하였느니라.” 그럼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꾸실 건가요? 세 번째 여성 단수 불완전완료를 취하면 2인칭 주어에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한다면, “주께서는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그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영혼이 속죄 제물이 될 때, 그는 그의 씨가 그의 날을 연장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리이다.” 따라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언어 형식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모호함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주제로서 “그의 영혼”이나 “그의 생명”을 선호합니다. 이는 또 다른 흥미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BDB 히브리어 사전의 ‘*아삼* (속죄 제물)’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제물은 추정할 수 있고 보상으로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범죄에 국한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속건 제물은 숫양이었고, 배상하고 그 가치의 5분의 1을 벌금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줄을 주목하십시오. “메시아의 종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을 ‘*아삼*’으로 바치고 그들을 대신하여 중재합니다. 이사야 53:10.” 그것은 하위

페이지의 31페이지입니다.

메시아의 종은 자신을 속죄제물인 *아삼* 으로 바칩니다. 레위기 17:11
 과의 관계도 주목해 보십시오. 레위기 17장 11절은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고 하신 것이 *네페쉬* 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는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
 여러분의 생명]을 속죄하려고 그것을 너희에게 제단 위에서 주었노니 이는
 피가 영혼을 속죄 함 이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네페쉬*라는 단어가
 단수나 복수로 세 번 나온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 53장에서 당신은 그것이 나
페소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 은 ‘ *아삼* ’, 곧 속죄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생명은 속죄제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에서 대속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진술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장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의* 생명, 그의 *네페시*는
 ‘ *아삼* ’, 즉 속죄 제물을
 구성합니다. 다음 문구는 “그가 씨앗을 볼 것이다” 입니다. 이는 종의
 희생의 결과에 대한 진술을 제공합니다. 8절에 “그는 사는 땅에서
 끊어졌느니라.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그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가 드리는 제물의 결과로 “그가 자기의 씨를 볼 것이라
 ”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은 길리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후손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날이 끊어지는 것 같으나 여기서는 장수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여기에 부활의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다. 후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것이 구속받은 사람들, 그분이 행하신 일로부터 유익을 얻은 사람들, 그분의 일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11 목적 속격: 그분에 관한 지식

11 절 . “그는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니라.” 두 번째 문구인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이 가지고 있는 지식, 즉 “그의 지식으로” 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종에 대한 지식인가? 즉, 객관적인 소유격과 주관적인 소유격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의’가 주관적 소유격보다는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표현은 “그분에 관한 지식으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가 행하신 일을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 그 종은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이사야 53:12 그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사야 53 장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몫을 큰 자들과 나누어 주고 그는 그의 탈취물을 강한 자들에게 나누리라.” 그러면 당신은 “그가 자기 영혼을 쏟아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몇 가지 요약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중재하였느니라.” 나는 마지막 문구가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당 장에서 표현된 아이디어가 반복됩니다.

이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은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큰 자와 몫을 나누어 주고 그는 강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리라.” 인용문의 29페이지를 보십시오. 나는 알렉산더가 그의 논평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이것을 읽고 싶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칼빈, 게세니우스, 에wald가 승인한 일반적인 해석을 채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해석에서는 그를 가장 위대한 정복자들과 동등하게 묘사한다고 가정합니다.” 즉, 여기에는 종이 정복자로 묘사되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충분하지 않거나 마르티니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미가 냉담하다면, 강제적인 구성을 통해 저자의 표현을 강화할 권리가 없는 것은 해석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Alexander가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절의 단순한 의미는 그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가 강한 자와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라는 말의 단순한 의미는 “그가 승리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승리자들이 그들의 사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도 그의 사업에서 영광스러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통역사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그가 자신의 전리품을 나누려는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모든 종류의 토론에 참여합니다. 알렉산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2절의 첫 번째 절에 사용된 비유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며, 사용된 비유는 정복하는 지도자의 비유입니다. 아니면 왕. 간단한 아이디어는 그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 장은 훌륭한 장이다. 내가 언급한 것처럼, 이로써 우리는 하인의 구절이 끝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당신은 복수형으로 “종들”을 읽었지만 단수형으로 “종”을 다시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종의 일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아마도 이사야 54장, 55장, 56장을 마무리하는 데 한 세션을 할 것입니다.

브랜드 홀 (Brandy Hall)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Carly Geiman이 대략적으로 편집함

편집자: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재연함